

서울시 교육청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와 전문장학사 배치 건의안

제7차 교육과정과 맞물려 학교도서관은 자기주도 학습의 중심으로써 리모델링 지원, 장서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직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학교도서관을 위한 책임 있는 주무부서와 담당 장학사가 없이 학교도서관의 껍데기만 발전시킨 형국이다.

학교도서관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이며, 사서교사는 도서관 운영 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교과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교사다. 이런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교수·학습의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와 전문 장학사 배치'를 건의하는 바이다.

1. 학교도서관 관련 독립부서 조직의 필요성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관련 조직은 '학교도서관 관리'와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학교도서관 시설이나 행사, 활성화 등은 '중등교육정책과/학사담당'에서 담당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논술 지도 등은 '교육과정정책과/교과지도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어 일관된 운영지원체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이원화된 조직으로는 학교도서관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이원화된 '학교도서관의 관리(조직, 시설)'와 '학교도서관 운영(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협력수업)' 등을 전담 운영할 수 있는 독립부서 조직을 통해 이원화된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들 수 있다.'를 통해 학교도서관담당 전담부서편성이 법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1.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사서교사 출신의 장학사 배치 필요성

현재 교과부나 시도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장학수준은 대출 권수, 시설 현황 파악 수준의 양적 평가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의 시설이나 장서 확충과 같은 외형의 발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장학수준은 교수·학습 지원 수준과 같은 질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하지만 시도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도서관을 운영해본 적이 없는 행정인력이다.

질적 평가에 기반을 둔 학교도서관의 내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서교사를 장학사 배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사서교사 출신의 학교도서관 담당 장학사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경험을 통해 질적 평가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협력수업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도서관협의회'는 교수·학습의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와 전문 장학사 배치'를 건의하는 바이다.